

일본, 태양전지에 1600억엔 투자

Showa Shell, 100만KW 신설 ... Hitachi 패널공장 부지 매입 검토

Showa Shell이 2010-14년 5년간 태양전지 사업에 총 1600억엔(약 17억달러)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Showa Shell이 지구온난화 등을 배경으로 석유제품 수요 감소가 가속화함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키로 했다고 5월27일 보도했다.

Showa Shell은 2014년에는 경상이익 100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500억엔을 태양전지 사업에서 벌어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howa Shell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Miyazaki 소재 공장 2곳이 연평균 8만kW에 달하고, 신규 100만kW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의 입지는 2009년 가을 결정할 예정인데 현에 있는 Hitachi의 플라즈마 패널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7>